

안산갈대습지에 멸종위기종 저어새 10여마리 먹이활동 포착

지난 10월 초부터 꾸준히 출현해 먹이활동 계속
도심 속 기수역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 입증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은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 앞 갯벌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저어새(Platalea leucorodia) 10여마리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관찰은 재단이 수행 중인 기수역 생태계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갈대습지가 멸종위기 조류의 안정적인 먹이터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 의미가 크다.

저어새는 몸길이 약 80~90cm에 이르는 대형 백로과 조류로, 부리가 납작한 주걱 모양인 것이 특징이다. 부리를 좌우로 저으며 갯벌 속의 작은 물고기, 새우, 수서곤충 등을 걸러 먹는 습성이 있어 '저어새(Spatula-billed Stork)'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내에서는 인천 송도와 강화도를 중심으로 번식하지만,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일대에서도 최근 몇 년간 소수개체의 출현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안산갈대습지에서는 붉은발 말뚝개, 금개구리, 수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으며, 저서생물과 조류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심 속 기수역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안산지역의 기수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생태 전이대(ecotone)로, 염분대가 다양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 안산갈대습지는 이러한 기수역 특성이 뚜렷한 수도권 유일의 대규모 내륙형 갯벌로, 도시 개발 이후에도 보전된 서식지가 생태계 안정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도심 속에 위치한 안산갈대습지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먹이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안산환경재단은 앞으로도 시화호와 연계한 기수역 생태축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 ESG 협력사업을 통해 도심 속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시민이 체감하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부도저널 방문... 윤성용 발행인과 대담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강준석(오른쪽)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가 20일 대부도저널을 방문했다. 이날 강 전 차관은 본사 윤성용(왼쪽) 발행인을 만나 시화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산 및 대부도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두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제40대 국립수산물관리원 원장과 제7대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석좌교수(자원경제학박사)로 재직중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모범 어르신 등 31명 표창

수상자 가족 등 350여 명 참석

안산시는 23일 안산시 단원구 노인 지회가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노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이민근 시장을 비롯

해 단원구 경로당 회장과 수상자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노인 및 노인복지 유공자 등 31명에 대한 표창 수여, 기념사,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운을 뗐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동 지사협, 위원 화합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위원 간 소통의 장 마련하고
비전 공유 및 역량 강화위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충남 예산 일대에 서 위원 간 화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예산 일대를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가운데,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방안과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사협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부동 지사협은 현재 ▲한마음 꾸러미 사업 ▲계절별 반찬 나눔 ▲동네 구석구석 불편 해소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교실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희영 민간위원장은 “이번 워크

숍은 위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사협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계기였으며 대부동 지사협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참여 덕분에 이번 워크숍이 매우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지사협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 지원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李시장 뇌물 혐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민중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민근 시장에 대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해외 출장을 다녀온 행태를 두고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전원주택, 토지, 펜션, 매매 및 분양

 **포도나무부동산TV**
YouTube 032.880.047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12 (구봉도 입구/ 배터지는 집 옆)

이민군 시장,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행사서 시민 중심 복지 다짐

복지 도시 비전 안산 제시

안산시는 23일 이민군 시장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복지 도시 안산 비전을 밝혔다

이민군 안산시장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년간 지역의 복지 허브로서 주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안산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힘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군 안산시장을 비롯해 내빈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20년 발자취 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유공자 시상식 등



이민군 시장(왼쪽 네번째)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관 앞 마당에서는 ‘20년 역사사업 전시’ 및 ‘포도원 운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개관 이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

히, 보건복지부 시설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A) 등급을 받고 지난해에만 11건의 외부 수상을 달성하는 등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市, 제12회 어린이집 동요제 개최 ‘노랫소리에 웃음꽃’ 활짝 피어나



이민군 안산시장이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안산시 어린이집 동요제'에서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는 22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정)가 주최한 ‘제12회 안산시 어린이집 동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2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동요제는 아이들에게 전통의 소리를 익히고, 흥과 멋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국악동요제 형태로 개최됐다.

이날 영아팀과 유아팀은 국악 동요를 선보이며 관객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사했다. 동요 발표 후에는 마술쇼 공연이 펼쳐져 아동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이날 시상은 대상 1팀을 비롯해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7팀 ▲장려상 9팀 등 모든 팀이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정곡이었던 안산시민의 노래는 대상곡 양코르 공연에서 참석 아동들이 함께 합창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오늘 무대를 위해 노력한 모든 원아들과 보육교직원, 그리고 아이들이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동요제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군 시장은 “아이들의 해맑은 노랫소리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이민군 시장, 사동 주민과 내년도 예산 구상...‘현답행정’ 지속

안산시는 22일 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를 주제로 시정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 및 관내 직능단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주민이 제안한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민군 시장의 시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사동 지역 현안 보고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현답버스’를 통한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됐다.

이날 이 시장이 ‘현답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방문한 곳은 사동 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용신경로당 증축 현장이다. 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을 살피며 주



안산시는 22일 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를 주제로 시정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민군 시장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바로 ‘현답행정’의 핵심”이라며 “경로당 증축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서 협의와 사전 절차를 이행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이 제안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수렴된 사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 밀착형 사업과 주민 편의 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2025 인구주택총조사 앞두고 통합상황실 운영 착수

안산시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총조사 수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통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

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5의4에 근거한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총 364명(▲조사관리자 35명 ▲조사지원관리자 10명 ▲조사원 319명)을 투입한다.

또한,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인터넷·전화·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총괄 관리를 위해 상록구청 민방위 대피실에 통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나선다.

시는 우선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미응답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태블릿PC를 지참하고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상황실(031-481-0271, 02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군 시장은 “이번 조사는 향후 도시계획, 복지, 외국인 정책, 교육·주거·교통 인프라 구축 등 모든 행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국가 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통합축제 ‘2025 안산페스타’ D-1... 가을 빛으로 물든다

안산시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안산시 통합축제 ‘안산페스타 2025’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안산화랑유원지와 안산 와~스타디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안산페스타는 기존에 시기별·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축제와 행사를 ‘안산페스타’라는 통합 브랜드로 묶어 선보이는 가을 대표 통합축제다. 전통과 현대, 예술과 체육, 시민 참여와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종합 문화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가을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① 축제의 서막, ‘안산거리예술 아트마켓’ (10월 23일)

축제의 서막은 안산거리예술 아트마켓으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다. 국내외 거리예술가와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이번 마켓에서는 ▲공연단체 홍보 부스 ▲ASAM 포럼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② ‘제14회 김홍도축제’ 개최(10월 24~26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는 통합축제의 중심인 ‘제14회 김홍도축제’는 원형무대, 단원각, 소형공연장 각 사이트별로 진행된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 마당극, 국악 등이 펼쳐지고 조선말 체험, 마술, 사생대회, 베타작,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③ ‘제14회 장애 학생 체육대회’ & ‘Rock & 樂 페스타’ (10월 24일)

축제 둘째날인 24일에는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제14회 장

학학생 체육대회’가 열린다. 관내 장애학생들이 육상·풋살·한글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치며 화합과 도전의 의미를 더한다. 또한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는 시민과 청년이 함께 즐기는 ‘Rock & 樂 페스타’가 개최되며 가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④ ‘안산 펫 페스티벌’ & ‘안산음식문화제’ & ‘평생학습 한마당’ (10월 25일)

안산 와~스타디움 서측 잔디광장에서는 ‘2025 안산 펫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반려동물 운동회, 펫마켓 교육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장과 대공연장에서는 ‘안산음식문화제’와 ‘평

생학습 한마당’이 동시에 열린다.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음식문화제에서는 우리 시 음식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린다. 특히 향토음식, 전통장 만들기 등 다채로운 시식·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평생학습 한마당에서는 시민 누구나 학습의 성과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⑤ 볼거리와 먹거리도 풍성 김홍도미술관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김홍도미술소장품전(진품전)’이 열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미술관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가 이달 26일까지 진행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 전 해양수산부 차관 강준석
△ 전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다발 5곳에서 370명 발생

한전 MCS 127명
한전 KPS 55명
박해철 의원, 산재 다발 5곳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안전대책 시급



다발 상위 5곳에서 최근 3년간 총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전MCS가 127명으

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주) 55명, △한국전력공사 47명, △한국수력원자력 46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3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 안정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이 기본적인 현장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

고 있다”며 “집중 점검과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한전MCS는 넘어짐(50명)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았고,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30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업무상 질병(9명),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육행사 중 부상(11명)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질병(9명)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감전(6명)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감전, 질병, 넘어짐 등 모

두 기본 안전수칙과 점검체계만 작동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반복 재해 사업장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산재 다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책임제를 도입하고, 안전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정책간담회 열고 시 현안 논의



이민근 안산시장(왼쪽 세번째)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장성민(국민의힘 안산시갑) 당협위원장, 서정현(국민의힘 안산시을) 당협위원장, 김명연(국민의힘 안산시병) 당협위원장과 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안산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정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산선 지하화 ▲한양대병원 첨단의료 복합클러스터 조성 현안 등 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당협위원장과 폭넓은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정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이민근 시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역점사업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자 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책”이라며 “앞으로도 당정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현장으로 사향
청취하는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7)은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으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안산시 8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안산시 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도 함께 하여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부족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으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등이 언급되었으며,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현장 중심 지

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

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ITS 뇌물 의혹, 이민근 시장 철저히 수사하라”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는 20일 오전 상록수역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의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번 피켓팅에는 서태성·홍순영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사진은 홍순영 부위원장의 피켓팅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
철저한 수사 촉구 성명 발표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위원장 용혜인)는 20일 오전 상록수역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의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번 피켓팅에는 서태성·홍순영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최근 ITS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산시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이민근 시장 또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는 10월 1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안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근본부터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시의 수장인 시장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은 안산시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구조적 부패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행정의 도덕적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이민근 시장은 사건의 중대함을 외면한 채 해외 출장 중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시간 끌기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명확한 책임”이라며, “경찰은 관련된 모든 인물의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낡은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요구한다”라며 “기본소득당은 부패와 특권의 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현 국회의원 장상지구 IC 신설협의 국토부·도공에 촉구



안산장상 공공주택 지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로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IC) 신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사진)은 22일 보도자료를 내 “안산시민의 편의를 위해 장상지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와 직접 연결되는 IC 신설계획을 서둘러 협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 국회의원의실에 따르면 안산장상 지구는 서서울TG 바로 옆에 조성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IC 신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장상지구에는 이르면 2027년부터 1만 4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민들이 3.5km

이상 떨어진 안산IC를 거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상IC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각각 1.54, 1.24로 나왔다. 통상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와 2차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도로공사에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추가 보안을 요구, 안산시는 지난 5월부터 8799만 원을 투입해 다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안산시는 도로공사가 △기하구조 △교통 영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저널트레킹투어’… 속리산 법주사 세조길 다녀와



대부도저널이 진행하는 ‘저널트레킹투어’ 세 번째 일정이 10월 22일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트레킹에는 독자와 지역민 등 다수가 함께 참여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속리산 법주사 입구에 설치된 인공폭포 앞에서 독자와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속리산의 단풍과 국화 향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 만끽

대부도저널이 진행하는 ‘저널트레킹투어’ 세 번째 일정이 10월 22일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트레킹에는 독자와 지역민 등 다수가 함께 참여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른 아침 7시, 대부도저널 주차장에서 출발한 버스는 약 3시간의 이동 끝에 오전 10시경 법주사 주차장에 도착했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속리산의 대표 산책코스인 ‘세

조길’을 따라 걸으며 청량한 가을 공기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했다. 트레킹 중간에는 법주사 경내를 방문해 국화꽃으로 장식된 다양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법주사 곳곳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국화밭은 마치 ‘국화의 향연’을 방불

케 했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평온한 사찰의 분위기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시간에는 산채비빔밥과 도토리묵, 그리고 동동주가 곁들여진 식사로 오전의 피로를 달랬다. 식사 후에는 보은군 시내 중심 하천변의 ‘벚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보은 대추축제’ 현장을 찾았다. 500여 개의 판매 부스가 들어선 축제장은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규모로, 대추 판매대와 다양한 특산물 체험 코너가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대추를 구입하고 시식하며 지역 축제의 활기를 직접 체험했다.

트레킹을 마친 일행은 귀가길 차량 안에서 이날의 소감을 나누며 “맑은 날씨와 멋진 코스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음 달 예정된 네 번째 일정인 ‘군산 장자도 트레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이날 트레킹에 함께 한 대부도저널 윤성용 발행인은 “독자들과 함께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코스를 통해 건강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김태창 기자

천주교 대부동성당 방아머리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천주교 대부동성당(주임신부 김지훈 펠릭스)에서 19일 일요일 오후 대부동 방아머리 일대에서 자연보호 환경운동을 펼쳤다. 김태창 기자

쓰레기봉투 5개분량 수거 대부분 풀숲에 버려져 있어

천주교 대부동성당(주임신부 김지훈 펠릭스)에서 19일 일요일 오후 대부동 방아머리 일대에서 자연보호 환경운동을 펼쳤다.

이번은 지난 7월에 진행한 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와 건너편 주차장 인근의 쓰레기를 줍는 자연정화 활동이었다.

이날 주위모은 쓰레기는 쓰레기봉투 5개 분량으로 대부분 풀숲에서 많이 나왔다.

여름철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줄었지만 지난 여름에 풀숲과 돌틈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가 아직도 그대로여서 쓰레기를 줍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부동성당 관계자는 “풀숲과 돌틈 사이에 이처럼 많은 쓰레기가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은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겨서 버린다”고 한숨을 내 쉰 것도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남초등학교 수학여행단 국회방문… 박해철 의원 직접 안내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박 의원께 감사의 말 전해

대부남동에 위치한 대남초등학교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학여행 주요 일정은 미디어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방송국 견학, 국회의사당 방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방송국에서 뉴스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방송 제작의 원리와 공정한 미디어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어 16일 방문한 국회의사당에서는 안산 지역구 박해철 국회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해 주었으며 함께 로텐더홀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며 국회의 역할과 입법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학생들은 박해철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둘러보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난 16일 대부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국회도 둘러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이때 지역구 의원인 박해철 국회의원이 직접 마중을 나와 학생들 및 학부모들과 함께 국회 이곳 저곳을 돌며 설명해줘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해와 관심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국회를 돌

러 볼 수 있었던 한 학부모는 “요즘 국감일정으로 바빔텐데도 불구하고 직접 학생들과 함께 국회 이곳 저곳

을 돌며 설명까지 해 줘 대단히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국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대부동 위원회, 불고기 기탁

대부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에 전달요망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회장 배윤길)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불고기 37팩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대부동위원회에서 오전부터 직접 만들어 준비한 음식 나눔 봉사료, 추워지는 계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기탁된 후원물품은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되어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배윤길 회장은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더욱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나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도 단신

제3기 대부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신청기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모집인원 35명(위원장 1명, 예비후보자 5명), 신청자격: 15세 이상 대부동 거주 및 사업장과 기관 등 종사자,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031-481-6642)로 문의하면 된다.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이민근 시장, 대부동 장골1길 일원에서 주민과 현장 소통

예산 반영 앞두고 지역 숙원 현장 논의“대부도의 내일, 주민과 함께 만든다”

안산시는 지난 21일 대부문화센터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대부동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민근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

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 의견을 시장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대부동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생활 인프라·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장골1길

도로 확장 ▲생활 SOC 확충 ▲관광지 주차난 해소 ▲안전 환경 조성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주민 숙원 사업인 ‘장골1길 도로 확장’ 관련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도로 확장 시 교통 편의는 물론, 보행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단

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는 안산의 미래 성장축이자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중심이 될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해 대부동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가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감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의견을

예산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형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동을 포함한 전체 동 주민과의 대화를 순차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3회 안산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원우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0여 명 함께 가을 운동회
단체 우승은 아카데미 4기

안산상공회의소는 10월 18일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안산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원우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안산상의가 주최하고 CEO아카데미 5기(회장 박종원)가 주관한 행사로, 안산상공회의소 김철봉 회장 직무대행과 CEO아카데미 총원우회 김태한 회장, 안산시의 회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원우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철봉 직무대행은 “상생과 화합의 장이 되는 총원우회 체육대회에서 원우 간 유대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안산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총원우회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한 총원우회 회장은 “기수와 세대를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총원우



안산상공회의소는 10월 18일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안산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원우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회 체육대회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원우 간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호흡하는 열린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기수별 입상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와 응원전이 펼쳐졌으며,

푸짐한 경품과 초청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아카데미 4기가 종합우승을 차지해 우승상금과 트로피를 수여받았다.

한편, 안산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는 안산지역 상공인과 리더들을 대상으로 미래경영에 해안을 제시하고자 2018년 출범하였으며, 현재 아카

데미 8기까지 약 3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안산의 명품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산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장애인 탁구 선수단에 재능 기부... 도쿄 데플림픽 준비 지원



안산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부가 이천 선수촌에서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정희재 기자

안산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부가 이천 선수촌에서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국가대표 탁구 선수단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2025 도쿄 데플림픽’ 출전을 앞두고 특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능기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부 선수들의 역량을 살려 원포인트 레슨 형식으로 이뤄졌다. 선수들은 직접 자세교정 및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

원했다.

재능기부에 참석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산시 선수들의 도움을 통해 대회 준비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됐다”라며 “좋은 성적을 통해 안산시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2025 도쿄 데플림픽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단원경찰 교통안전계장 홍은표 경감,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제80주년 경찰의 날 맞아
국민 안전 지킨 공로 인정

교통안전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안전계장 홍은표 경감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21일 오전 안산단원경찰서는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홍은표 경감에서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발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와 경찰직원을 비롯 80여명이 참석했다.

홍 경감은 그동안 교통안전 책임자로서 단원구 관내 사고다발구역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추진,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체감하는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에 힘써왔고 이번에 그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이강석 서장은 “국민의 신뢰가 경찰이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다”라며 “앞

으로도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교통안전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안전계장 홍은표(왼쪽) 경감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은 이강석(오른쪽) 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전수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한양대 에리카서 11월 1~2일 개최

‘미래와 함께 혁신도시 안산 ASV’슬로건... 100여 개 다양한 콘텐츠 담아

안산시는 11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이틀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미래와 함께하는 혁신도시 안산, ASV’라는 슬로건으로 ‘2025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

해 큰 호응을 얻었던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이번 축제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통해 과학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재)안산시청 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재)경기테크노파크·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진보·혁신하는 과학(Advance Zone) ▲빛나는 과학(Shine Zone) ▲과학의 관점(View Zone) ▲미래 과학(Future Science Zone)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의 88로봇위크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디지털교육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휴머노이드 로봇공연 ▲인공지능(AI) 체험 ▲전시·체험 프로그램

▲과학 미술공연 ▲과학 콘서트 등 총 100여 개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축제가 AI와 로봇 등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안산 시민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족구 열기 한가득”, 2025 안산시 장기 족구대회 성황리에 개최

12일 일요일, 화랑유원지 내 안산시전용족구장에서

‘2025 안산시장기 족구대회’가 지난 10월 12일 일요일, 화랑유원지 내 안산시전용족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는 하루 동안 펼쳐졌으며, 약 500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해 뜨거운 경쟁과 화합의 장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안산시체육회(회장 이광중)가 주최하고, 안산시족구협회(회장 오준섭)가 주관하여, 지역 내 족구 동호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대회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선수단과 가족, 시민들이 모여들었으며, 연령대와 실력에 따라 나뉜 다양한 부문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체력과 기술을 겨루며,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안산시족구협회 오준섭 회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체육회 이광중 회장은 “족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이기에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한 시민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지역 족구 동호회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실력과 팀들도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일부 종목에서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족구의 매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결과

-장년부 : 1위(안산고잔FC), 2위(군포흥진), 3위(웅심세우,안양F2A)
-안산3부 : 1위(선부A), 2위(선부C), 3위(안산시청A,스킬족구A)
-안산4부 : 1위(스킬족구), 2위(레이크C), 3위(제이에스,노적봉)
-최우수선수 : 선부A 성시훈
-최우수심판 : 신효범
-우수심판 : 장병호, 박재희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백운동 지사협 '소통과 복지'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단원구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시 화담숲에서 '오늘의 소통이 내일의 복지로'라는 슬로건 아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위원 간 교류 프로그램과 정기회의, 소통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연 속에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단체와의 협력 방안, 지역 자원 연계 전략 등 실질적

인 논의도 이뤄졌다.

문병만 민간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앞으로의 복지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작은 소통이 내일의 복지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복지마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백운동의 복지 현상이 더욱 따뜻하고 촘촘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본오3동에 불고기 나눔



상록구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로 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불고기 600g 36팩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나눔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마련한 행사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식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이 아침 일찍 모여 불고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서강원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사

무국장은 "최근 추워진 날씨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자 이 나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이 나눔으로 취약계층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힘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홍 본오3동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보태주시는 손길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선부3동, 2025 복사꽃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단원구 선부3동 주민자치회와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복사꽃 축제추진단 주관으로 '가을에 복사꽃이 핀다면?'이라는 주제로 '제3회 복사꽃 축제 문화예술어울림 한마당 with 상권축제'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부동 달미 제2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마을축제는 안산시 문화예술과 및 선부3동 골목상인회와 협력해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으며,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해 가을과 어울리는 무대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먹거리·놀이프로

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이영철 선부3동 주민자치회 부회장(회장 권한대행)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혁 선부3동장은 "복사꽃 축제가 선부3동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이동 새마을협의회, 취약계층에 소불고기 나눔행사



상록구 이동 새마을회는 지난 22일 관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소불고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150가구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불고기를 전달했으며, 이번 소불고기 나눔에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더했다.

불고기를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홀로 생활하면서 밥을 챙겨 먹기 힘들게 불고기를 나눠줘서 맛있는 한 끼

를 먹을 수 있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혁봉 새마을회장은 "홀로 지내며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보태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늘 선행을 베풀어주시는 새마을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동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강화 워크숍 진행



상록구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청주시 청남대 일대에서 지사협 위원 및 공무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위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 간 소통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단체의 정체성을 되짚고, 지역사회에서의 깊이 있

는 역할과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용래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지역의 복지 현장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이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혜숙 일동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지사협 본연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중앙동,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 체결



단원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주식회사 나래(대표 김문숙)와 주공9단지(아)경로당 간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미라 중앙동장과 김위덕 주공9단지경로당 회장, 김도영 주식회사 나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식회사 나래는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임대 서비스 등 업체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중앙동 주공5단

지(아)경로당을 후원해 왔으나, 해당 경로당이 재건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주공9단지(아) 경로당에 정기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문숙 주식회사 나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원을 이어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보살핌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미라 중앙동장은 "(주)나래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1사1경로당 후원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여러분의 애·경사를 알려드립니다

대부도저널은 대부도 주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애·경사 및 행사 알림, 회원모집 등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좋은 사람, 좋은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칭찬소식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애·경사 및 행사 알림

알림 전화 : 032-880-9994 / 팩스 : 032-880-9961

대표메일 : dj250407@naver.com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삶의 가치를 더하는 공간



대표이사
정 승 수
(건축사 | 행정사)

다플러스원 건축사사무소(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80 부원프라자 401호
TEL +82.31.482.2500 FAX +82.31.486.2500

Mobile +82.10.7344.2457
E-mail jss1188@naver.com
jss1188@plusone.co.kr

대표이사
정 승 수
(건축사 | 행정사)

다플러스원 (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경기도 지방공무원 2급(지방이사관 명예퇴직)
- (전) 안산시 도시주택실장
- (전)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장
- (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장
- (전)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 (전)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전) 상록구 ·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 (전) 안산시 선부2동 · 원곡 1동장 역임
- (전) 성남시 신도시기획관실 근무(92~96)
-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 (한)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한) 시흥시 건축심의위원
-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자문위원
-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 (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

메추리섬 매매

(주)리치개발 · 황금토목

차준환 M: 010.5558.6665

토지 매매

(1)매매가 8억, 방2, 본인 주거 및 펜션가능한 물건 구함

(2)대부동동(영전마을) 대송단지 앞 맹지. 답. 350평.

평당 35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강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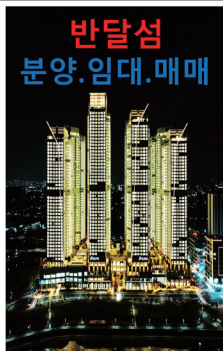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대부 우체국

032.886.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군자농협 대부지점

032.886.3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13

웅진군의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웅진군의의회(의장 이의명)가 제252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각 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또한 임시회 폐회일인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총 17건(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승인안 5건)을 최종 의결하면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의명 의장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의의회 이의명 의장이 제25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국가데이터처 통계서비스국장, 웅진군 방문해 회의

도서지역 통계조사 개선 방안 군수와 함께 논의

웅진군은 지난 22일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통계서비스국 김보경 국장과 회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34개의 도서로 구성된 웅진군의 열악한 통계조사 여건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웅진군 관계자들은 통계조사 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상과 교통여건에 따른 일정 조정 문제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충을 나누었다.

김보경 국가데이터처 국장은 “도서지역의 통계조사는 국가 정책의 균형발전과 지역 실태 파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복 웅진군수는 “지난 주 조사요원 교육장을 방문하여 조사요원 한분 한분의 고충을 듣고 격려의 말을 전달하였다”며, “정확한 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인구·가구·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주요 국가 통계조사로, 군은 조사요원들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제2회 웅진군협회 신시모도클럽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웅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23일, 신시모도 그라운드골프클럽이 주최한 ‘제2회 웅진군협회 신시모도클럽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북도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웅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23일, 신시모도 그라운드골프클럽이 주최한 ‘제2회 웅진군협회 신시모도클럽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북도면 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영흥면, 장봉도, 신시모도 등 3개 지역, 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

하기 위해 3개 지역 참가자들을 섞어 5개 조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기량을 공유하는 우정을 쌓는 장이 마련됐다.

신시모도 그라운드골프클럽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역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그라운드골프를 통해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재 기자

웅진군, 덕적면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웅진군은 21일, 덕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21일, 덕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의료원 공공의료사업팀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시 대처법 ▲응급상황별 기본 응급처치요령 등을 중심으로 체험형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과 AED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참여했으며, 강사들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지도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된 사업이다.

박혜련 웅진군보건소장은 “응급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심폐소생술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일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는 ‘저널 트레킹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세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5년 11월 05일(수) 오전 7시 출발 (오전 6시 50분까지 집결)
2. 장소 : 군산시 장자도
3. 모집 인원 : 선착순 80명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4.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5.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등 여행자보험 포함 /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6. 집결장소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김동연 지사 “생산성과 워라벨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주4.5일제 참여기업 찾아
용인 소재 기업 현장 간담회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용인 소재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성락 셀로맥스 사이언스 총괄사장과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기가 모범기업으로 4.5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왔다”며 “저는 앞으로 4.5일제가 일반화되고 그걸 징검다리 주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본다. 4.5일제 해도 워라벨 충분히 유지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가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 직관으로는 생산성과 워라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마침 새 정부도 일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2014년에 설립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전체 직원 54명 중 약 67%가 20~30대 청년층이다.

이 기업은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며 시차 출퇴근제 등 청년 친화형 근무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 4.5일제 도입을 계기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근속이 가능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주4.5일제 장려금과 근태관리시스템 및 정착컨설팅 2회,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2회 등의 지원을 해왔다.

김동연 지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주 4.5일제 시행 이후 변화와 근무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가 22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용인 소재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현장에는 김성락 셀로맥스 사이언스 총괄사장과 기업 임직원 등이 함께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아이들이 돌아라는 한 직원은 “아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진 변화다. 그전에는 6시 퇴근을 하더라도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저녁도 따로 먹느라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친밀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데 5시에 퇴근을 하면 해가 있는 상태에서 산책을 해줄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 “자기개발을 할 시간이 생겨 꽃꽂이 수업도 듣고 필라테스로 건강 관리도 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락 총괄사장은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생산성이 내려갈 일은 없다고 본다. 이 변화에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어차피 도태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회 전체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노동, 헛된노동도 없어질 것이라 확신

하고 있다.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 내 기업 중 104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제공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단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3연패 달성

경기도교육청 고등부(18세 이하부) 선수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104회와 105회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한 것으로, 경기도 학생 체육의 저력과 위상을 전국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 고등부 학생선수단은 ▲육상 ▲수영 ▲체조 등 모두 46개 종목에 159개 학교, 686명의 학생 선수가 출전해 ▲금 55 ▲은 60 ▲동 66개 획득으로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109kg급 이

동훈(경기체고), 근대5종 김건하, 정다민(경기체고) 학생이 3관왕, 배드민턴 조성훈(매원고)외 9명 학생이 2관왕에 올랐다.

특히 근대5종 경기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후 처음으로 전 종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는 기쁨을 나눴다. 단체종목인 남고부 야구(유신고), 남고부 농구(삼일고), 여고부 배구(한봄고)는 은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의 의미를 더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전문가 칼럼

글로벌 자본의 시선은 한국의 재생에너지였다



김시경
대부도협동조합 전무이사

지난 9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났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외교 일정으로 다뤘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깊은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가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자본과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상 몇 개 거대한 자본집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전 세계 ETF 시장의 절대 강자인 벡가드 그룹, 그리고 록펠러 재단이 중심이 된 RIT 캐피탈 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수십 년간 급격히 성장하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군림하는 블랙록까지 합쳐, 이들 네 곳은 사실상 세계 금융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이 1경 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금융사다. 래리 핑크 회장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본 이동을 좌우하는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그를 만난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 특히 자본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매력을 직접 설명하고 글로벌 자본의 시선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이미 산업적으로는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조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방산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율은 여전히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유럽 주요국이나 미국은 20~30% 이상으로 비중을 확대했다. 이 간극은 단점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주가 5,000 시대’는 단순히 지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친환경·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자본과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해진다. 블랙록과 같은 초대형 운용사, 그리고 로스차일드·벡가드·RIT 캐피탈 등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 자본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에 막대한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운다면, 이들의 투자금은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회동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한국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투자 지평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주가 5,000 시대는 글로벌 자본과 손잡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세계 3대 금융세력과 블랙록이 주목하는 나라,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단위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다. 특히 대부도협동조합처럼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집중하는 공동체적 조직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결국, 글로벌 금융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 시점에 대부도협동조합의 도전과 실천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그리고 우리의 추진사업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저널트레킹투어’ 속리산 정이품송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남긴 사진 한 컷

저널트레킹투어가 10월 22일 속리산 범주사 세조길을 걸으며 찾아오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보이는 단풍과 함께 우리는 오라솔길을 걸으며 꿈광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범주사는 부처의 법이 머무는 절, 속리산은 속세를 떠난 신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속세와 떨어져 부처의 안전한 품으로 파고드는 길목에는 온지 있는 초길이가 이어진다. 바로 오라솔길이다. 오라솔길은 속리산 테마넬에서 범주사 암구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가 십 리의 절반, 즉 '오리'라는 데서 붙은 이름이다. 2km에 이르는 길에는 이름드리 소나무와 전나무, 참나무가 울창한 터널을 이루고 있다. 오라솔길을 무로하고 우리는 정이품송을 찾았다. 그곳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기록으로 사진을 남겼다.

글: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진:윤성웅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2회 조선 후기 대부지도로 본 대부도 지명 이야기(하)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이전호에서 계속 흘곶동(訖串洞)은 섬의 가장 끝 끝이 있는 마을, 영전동(營田洞)은 농사짓기 좋은 마을, 화불리(禾不里)는 벼농사가 잘 안되는 마을, 사동(寺洞)은 절(佛)이 있는 마을, 미동(尾洞)은 섬의 가장 뒤쪽에 있는 마을, 종현동(鍾懸洞)은 종을 매달아 알렸던 마을, 용두포(龍頭浦)는 방아머리를 닮은 포구, 말부흥의 부항포(浮缸浦)는 항아리가 물에 뜬 형상을 한 포구, 선감도(仙甘島)는 물이 좋아 신선이 내려와 목욕한 섬 마을. 불도(佛島)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던 섬마을, 탄매도(炭埋島)는 숯이 묻혀 있는 섬마을이다.

위(上)의 옛 대부지도에 서울 삼각산(북한산)이 그려져 있다. 2016년 사회조력발전소 문화관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부스에 근무할 때였다. 매우 청명한 날 나래휴게소 달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관광객 한 분이 북쪽에 멀리 보이는 산이 서울의 북한산 같다고 하였다. 자세히 보니 틀림

없는 옛 지도의 삼각산이었다. 대부도에서 서울이 보이다니? 대부지도(大阜地圖)를 그린 옛 선인들의 관찰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대부도와 맞닿은 북쪽에는 현재 대부도가 속해있는 안산과 인천, 부평, 멀리 송(山)도, 강화도, 월미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가 보인다. 우음도 외에는 거리가 표시가 없어 남양부와 다른 관점에서 관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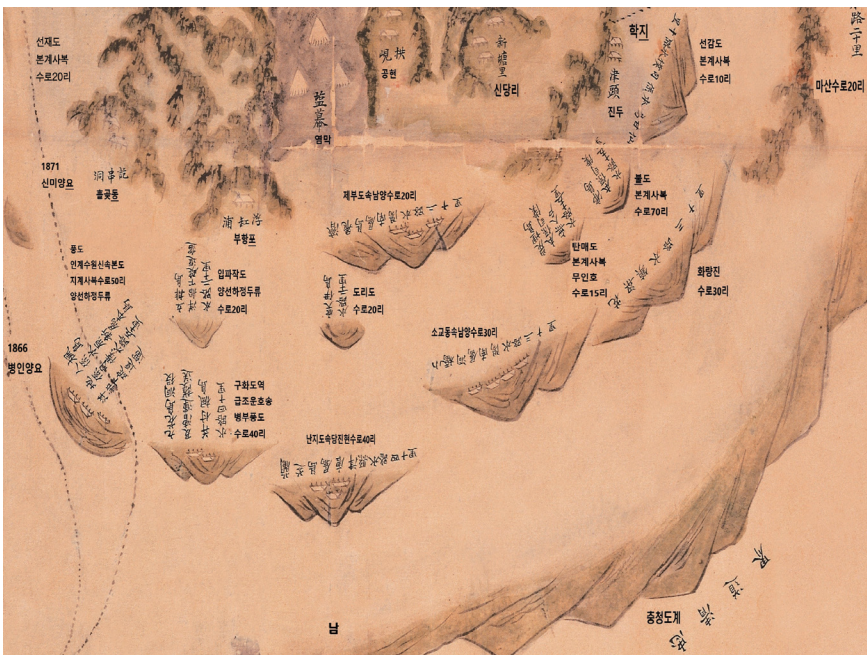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는 조운선(漕運船)의 길잡이가 된 쌍섬인 제1주차장의 나래휴게소와 앞의 큰가리기섬, 제2주차장과 안산행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작은가리기섬이 있다. 조력발전소와 달전망대, 나래휴게소는 조력발전소를 만들며 끌어올린 토석(土石)으로 조성한 것이다.

서쪽으로는 구봉도 낙조전망대 오른쪽에 물살이 아주 거친 변도(弁島, 고갈섬)가 보인다. 동쪽으로는 영전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수산물물을 채취하던 외지섬이 있고, 대부도가 속해있었던 남양부와 20리 뱃길의 우음도 및 남양봉수(南陽烽燧)가 보인다. 그리고 대부도지계사복(大阜島地界司僕) 인계남양(人係南陽) 신속본도(新屬本島)는 대부도의 사람은 남양에 속하고 섬은 새로 지정한 사복시관할의 목장이라는 것이다.

아래(下) 옛지도의 동쪽에는 간조 때 학(鶴)이 남양에서 대부도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 건넌다는 학지(鶴之)가 표시된 마산진수로20리와 화랑진수로30리가 있다. 선



삼각산, 황금산, 쌍섬, 고갈섬, 외지섬이 그려진 1872년 대부도 고지도



풍도, 국화도, 압하도 선감도, 도리도가 그려진 1872년 대부도 고지도

감도(仙甘島), 불도(佛島), 탄매도(炭埋島)는 대부도 사복시 관할이고, 탄도는 무인호(無人戶)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동쪽에는 소교동(小橋洞) 안고림과 제부도(濟飛島), 돌이도(突伊島)는 남양에 속(屬南陽)한다. 남(南)쪽 풍도(楓島)는 인계수원신속본도(人係水源新屬本島), 지계사복수로오십리(地係司僕水路五十里), 양선하정두류(洋船下碇逗溜)로 이를 풀이하면 '사람은 새로 소속된 수원의 본섬에 속하고, 섬은 대부도 사복시 관할로 뱃길 50리이며, 풍도와 같이 입파도(立島)에도 서양 배가 닻을 내리

고 머물렀다. 구화도동역(九花島洞役) 급조운호송(及漕運護送) 병부풍도(并付楓島) 수로40리(水路四十里)는 국화도 마을은 풍도와 함께 조운호송에 노동을 제공하고 뱃길 40리에 있다. 그리고 서(西)쪽의 선재도(仙才島) 본계사복(本係司僕) 수로20리(水路二十里)는 선재도는 대부도 감목관 관할로 뱃길이 20리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근섬은 대부도 감목관 관할이었고, 임금이 계시는 한양의 삼각산뿐만 아니라 작은 섬과 항로(航路)의 거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부도 주변

데스크 칼럼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에서 40대 아버지가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평소 딸의 학업과 행동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술도, 약물도, 정신질환도 없었다. 즉, 순간적인 ‘광기’가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소유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내 자식이니가 내가 훈육한다’, ‘내 뜻을 거스르면 벌을 줘야 한다’는 왜곡된 통념이 결국 생명을 빼앗았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분신이나 재산처럼 여기는 순간 관계는 폭력으로 변한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통제한다. 공부를 강요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이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다. 부모의 역할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과 미래의 주인공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훈육 중 폭행’, ‘생활태도 불만’ 등을 이유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잇따랐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공분이 터져나올 뿐, 그 근본적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모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 학교나 이웃이 아이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도 “가정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발을 뺀다. 하지만 가정은 성역이 아니다.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는 한, 그곳은 더 이상 보호의 울타리가 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이미 아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라도 아이를 학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법보다 앞서야 할 것은 ‘인식의 변화’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회가 가정 내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도, 대리인도 아니다. 그들의 삶에는 부모와는 다른 꿈과 감정, 그리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한 생명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언제나 ‘의도’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의 바다가 중요함을 알리는 것이다. 과거(過去)에 중요한 바다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더욱더 중

요하다. 이 지도는 후손(後孫)에게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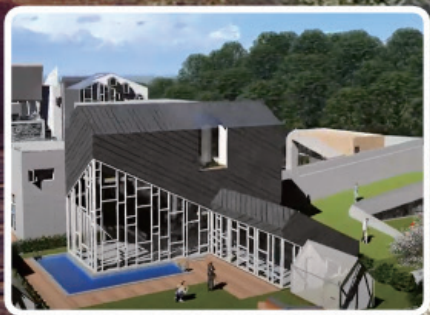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답게 내려앉은 곳~
풀장과 해변이 있는 숲속 마을. 서울에서 1시간!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곳~
신축 풀빌라의 프리미엄 시설을 모두 갖춘 단지! 지금 분양 받고, 성수기엔 풀북 예약으로 월세 걱정 끝!

“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북항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안산대부도
바닷가 풀펜션부지

토지분양

- 대부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낙시터 부지)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

설계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주) 말 봉